



EU의 COVID-19
회복전략에서의
그린딜(Green Deal)의
역할

EU의 COVID-19 회복전략에서의 그린딜(Green Deal)의 역할

- 서론
- COVID-19로 인한 경제 위기
- EuroPace 이니셔티브: 건물개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타격이 큰 건설 부문
- 에너지 효율 및 지역 재생에너지 투자 사례



EU의 COVID-19 회복전략에서의 그린딜(Green Deal)의 역할

국내 IP 김 경환

○ 서론

□ 2020년 3월 18일 COVID-19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해 유럽 중앙은행(ECB)은 7,500억 유로 규모의 COVID-19 대유행 비상 구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그린딜(Green Deal)을 포함한 5,400억 유로 규모의 산업자금 지원방안과 1조 유로가 넘는 EU 경제회복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이 경제회복계획이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해 기존 부채의 탕감(the mutualisation of existing debt)보다는 향후 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춘 산업 성장 맞춤형 복구 및 재건 통합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경제회복계획이 그린딜(TheGreen Deal)과 디지털전환(The digital transformation)을 핵심목표로 삼는, “Renovation Wave”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린딜(TheGreen Deal)을 실행함에 있어 공공에서 지원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개축 프로그램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공정하며, 탄력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혁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빈곤 완화 및 유럽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주택의 에너지 사용과 개조에 장애가 되는 법적 규제, 현재 건설 부문의 폐쇄 상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전 부양 프로그램에서

시행됐던 주택 개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효율 계획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해 공공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COVID-19는 유럽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유럽 제조업의 약 3분의 1이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간 GDP 감소는 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COVID-19를 막는 것이다.

COVID-19를 막아야만, 기업의 경제활동 회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능력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COVID-19 보다 좀 더 오랫동안 인류를 위협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COVID-19의 충격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부양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양책의 일부로 동작하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건물 개조 작업은 일자리 증대와 경제활동 증대에도 기여하며,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직접 지출
- 관련 건설 근로자의 소비
- 자원 효율적인 경제로 인한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됨
- 실내 공기질 악화와 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 방지: 장기간의 폐쇄기간 동안 거주지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

EuroPace 이니셔티브: 건물개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EuroPACE 이니셔티브는 건물개축 과정 전반에 걸쳐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고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2017년 EU-27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은 EU-27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27.2 %를 소비하고 있으며, EU 온실가스의 약 40%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27과 영국이 온실가스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인 상황이나, EU의 건물 절반 이상이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건설된 것들로 건물개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석에 따르면, 대대적인 건물개축이 가능하다면 건물 사용 연한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50~8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럽의 주택과 건물의 연간 보수율은 약 1.2%이며, 이 중 0.2%만이 완전 개조이다. 현재 파리 협정이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억 5천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 관련된 주택 개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간 주택 개조율을 3.4%까지 증가시켜야 하고, 현재 수준의 거의 3배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가능한 수치이다.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벨기에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경우 100~300억 유로, 프랑스의 경우 500~1500억 유로, 독일의 경우 1,000~ 2,0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개축을 확대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 일단 개축을 위한 기본 비용이 2만 유로 이상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개축을

하게 되면 은행 대출을 사용해야 하는데,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비용 회수에는 수년이 소비되어 일반적인 상업적인 대출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개조를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과 개조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따져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개조주택에 세입자가 일부 들어와 살고 있다면, 주택개조에 대한 투자 동인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현재의 COVID-19라는 대규모 경기 침체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자금 투자 의지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건물개축 과정 전반에 걸쳐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고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EuroPACE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프로그램이다.

타격이 큰 건설 부문

COVID-19는 다양한 경제부문에 충격을 가했지만, 건설부문 역시 타격을 심하게 받은 분야이다.

COVID-19의 창궐이후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연기됐고, 일부 건설공사는 취소되었는데,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경우 건설 및 주택 경제 연구소(The Economic Institute for Construction and Housing)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는 유럽 건설 장비 산업의 60%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과 관련하여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McKinsey & Co.는 건설산업에서만 590만 개의 유럽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영국도 약 50만 개의 건설부문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중소기업 일자리에서도 타격이 심해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의 76%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

건설부분 고용은 2019년에 EU-27과 영국에서만 4.3조 유로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 효율 및 지역 재생에너지 투자 사례

COVID-19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에너지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폐쇄기간 동안 장기간 실내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요금도 증가할 것이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에너지효율에 투자하는 것은 에너지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에너지 사용요금을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집 내부의 벽 및 창문 단열재, 신규 냉난 및 환기 시스템, 태양광 PV, 지열원 히트펌프 또는 바이오매스 보일러와 같은 소규모 지역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위해 개조하는 등의 에너지 효율 혁신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에너지 공급자로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유럽 GDP의 약 9%를 차지하는 건설부분의 성장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건설산업 부문은 1,800만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을 활성화하는 조치는 역내 건축의 7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사업이 확대되면 최대 약 2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 **에너지 빈곤 완화** : 에너지 빈곤은 매년 수백만 명의 유럽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4천만 명의 유럽인이 겨울에 적절한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9천 8백만 유럽인이 여름에 적절한 냉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약 700백만 명의 유럽인이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단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투자, 특히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이 사용하는 임대 건물 시장에 투자한다면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건물은 물과 전기를 덜 소비하므로 운영비용을 최대 37%까지 줄일 수 있다.

지금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COVID-19 대전환기에 있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EU의 2030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 동 보고서는 요약 및 번역본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원문은

(https://www.climatebonds.net/files/reports/building_a_recovery_from_covid_22052020.pdf)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IP 요약보고서